

포스코 휴양시설, 협력사에 개방한다

그룹사·협력사 복지 향상 나서

포스코가 사내외 휴양시설을 대폭 확충해 그룹사와 협력사들의 복지 향상에 나선다.

포스코는 주52시간 근무문화 정착 및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의 휴양시설 350실을 추가로 확보, 기존 319실에 더해 총 669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휴양시설은 포스코의 새로운 경영비전인 '위드 포스코(With POSCO)'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그룹사 및 협력사 임직원 3만3000명에게도 개방된다.

추가 확보한 350실 중 300실은 2018 평창 올림픽 기간동안 기자단 숙소로 이용되었던 포스코A&C의 국내 최초 이동형 모듈러 건축물로, 포스코가 이번에 매입해 '위드 포스코 레지던스(With POSCO Residence)'로 명명했다. 직원 휴양시설로 새롭게 거듭난



평창 위드 포스코 레지던스.

/포스코

위드 포스코 레지던스는 강릉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내에 위치한다.

포스코 및 그룹사, 협력사 임직원들은 사내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번 주말부터 본격 숙박이 가능하다. 위드 포스코 레지던스는 오픈 기념으로 내년 3

월말까지 무료 운영한다.

포스코는 이번에 휴양시설 확충을 통해 그룹사와 협력사가 전국의 휴양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직원 휴양만족도 제고는 물론 상생과 협력의 기업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PC그룹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말 기부 캠페인

SPC그룹은 연말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무연고아동 1:1 결연 후원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연고 아동 1:1 결연 후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무연고 아이들과 후원자를 연결하여 생활비와 의료비,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PC그룹은 캠페인을 통해 월 5만원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속한 후원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해피콘을 증정한

다. 결연 후원자는 후원금 지원뿐만 아니라 편지를 통해 아동과 정서적 교류와 지지를 할 수 있다.

후원 희망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거나 다음 링크를 통해 1:1 결연아동 후원을 신청할 수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무연고아동이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본 결연 후원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7854@

오늘의 운세 12월 14일 (음 11월 8일)



48년생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래야 한다. 60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72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84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얻은 정보가 큰 이익을 가져온다.



4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으니 기쁨. 61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73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85년생 사랑에는 늘 악간의 망상이 있기 마련.



50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2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74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86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51년생 항상 진실이 최상의 답은 아니니 묵수를 뛰어야 한다. 63년생 흔히 말하는 실력은 있는데 운이 없다. 75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살자. 87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되니 남탓을 마라.



52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낫다. 64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법. 76년생 깨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다. 88년생 초대 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쁜 하루.



53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65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 77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89년생 오늘은 양보와 희생이 미덕이다.



54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66년생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7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도장을 내일 찍어야. 90년생 숫자 7, 파란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55년생 홍일점(紅一點)으로 살았으니 내일도 그려할 것. 67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 신중하게 하자. 79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가 큰 낭패를 본다. 91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낭비.



56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도 좋다. 68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80년생 후배와 갈등이 생기니 주의. 92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57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6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매사에 조심. 81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폰이 풀린다. 93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58년생 자식이 새 인연을 데려오니 근심이 생긴다. 70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놓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82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라. 94년생 남들 기준에 맞춰서 살 필요는 없다.



59년생 감정질제를 잘 해야 일이 성사된다. 71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83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우선 의견통일. 95년생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9					8	3
		1	9		3	6	
8			6			2	
8							
1		3	8	7	9	2	
2			6	9			1
4						5	
2		9		7			
3	4						

3	2			8			
	8	9		4	3		
1						7	
4				7		5	
8			3			2	
1		4				8	
2							
7	5	6	1	2	7		
2	7	5	1	8	3		
1	9	1	3	6	7		
2	4	9	1	5	2	7	
7	5	8	9	2	4	3	
6	3	2	7	1	8	5	
2	3	4	5	9	6	9	

스도쿠 정답								
5	1	8	3	7	4	2	9	6
6	3	2	5	9	8	7	1	4
9	4	7	2	1	6	3	5	8
2	7	4	6	5	9	8	3	1
1	5	3	8	4	7	9	6	2
8	6	9	7	6	1	4	2	9
3	8	5	1	9	8	3	6	7
4	2	1	9	3	5	1	8	3
7	9	6	4	2	5	1	3	8

문제 제공=보노스

연말 호텔 고객은 '봉'?

기자 수첩



김민서
<유통&라이프부>

호텔의 이 같은 가격 인상에 일부 고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한 누리꾼은 "연말을 연인과 보내기 위해 호텔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예약을 하지 않을 순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예약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호텔의 연말 패키지가 가격 대비 부실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호텔업계도 할 말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수기에 맞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연말에는 다양한 메뉴와 와인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호텔업계의 이 같은 해명에도 고객들의 불만소리는 잣아들지 않는다. 매년 가격 인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월 숙박이나 뷔페를 이용하려면 11월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다. 올해만 해도 롯데호텔서울 '라세느'의 경우, 이달 주말 점심·저녁의 예약은 꽉 찬 상태다. '울며 겨자먹기'로 예약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호텔업계의 변명 아닌 변명이 고객들을 설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호텔업계 가격 인상 논란. 납득할 만한 이유와 새로운 소통이 절실했을 때다.

/min0812@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도로명 주소 유감



김상회의四季

도로명 주소 유감

필자가 구세대라서 그런지 몇 년 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아직도 낯설다. 도로명 주소는 말 그대로 도로에 이름을 붙여서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이고 그 도로상의 주택과 건물에도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의 새로운 주소체계를 말한다. 2011년 7월말쯤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하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임야나 논밭처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래서 건물이나 도로가 없는 곳은 예전처럼 지번을 사용해 부동산 등을 관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문서나 주민등록증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모두 도로명